

태풍이 핏퐁 필리핀·눈에 파묻힌 일본 '사망자 속출'

필리핀 관광 한국인 1000명도 발 묶여 日 폭설 1m 내리 7명 사망·마을 고립

최근 필리핀과 일본이 각각 태풍과 폭설로 인해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중부지역에 상륙한 대형 태풍 '하구핏(Hagupit)'으로 20여 명이 사망하고 12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일본에서도 5일부터 계속된 폭설 탓에 7명이 사망하고 일부 산간지역 마을들이 고립돼 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필리핀, 태풍 피해 사망자 더 늘어날 듯=필리핀 현지 언론은 이날 적십자사 관계자를 인용, 동사마르 주(州)에서만 적어도 2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태풍 하구핏으로 숨진 사망자 수는 중부 일로일로주(州)에서 희생된 2명을 포함해 최소한 23명으로 늘어났다고 GMA방송 등이 전했다.

특히 폭우를 동반한 태풍 하구핏이 8일(현지시간) 인구 1천200만 명의 수도 마닐라 주변지역으로 접근하면서 관공서와 각급 학교, 증권거래소 등이 일제히 문을 닫는 등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번 태풍으로 루손섬 남동부 마스바테, 세부 섬 일부 지역에서 침수사태가 발생하고 가옥들이 돌풍과 폭우에 무너지는 등 물적 피해도 이어졌다.

사마르 지역에서는 일부 하천이 범람하면서 상당수 저지대가 물에 잠겼고 인근 산악지대에서는 산사태도 잇따랐다. 특히 일부 피해지역은 통신마저 끊겨 인명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태풍 하구핏이 8일에는 인구 1200만 명의 필리핀 수도 마닐라 주변지역을 향해 접근하면서 현지 방재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상 당국은 태풍 하구핏이 이날 오전 4시 비샤야 제도 북부 롬블론에서 북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을 통과, 수도 마닐라 주변지역으로 북서진하



필리핀 중부지역에 상륙한 대형 태풍 '하구핏(Hagupit)'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8일(현지시간) 필리핀 주민 1명이 물에 잠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있다. /연합뉴스

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하구핏이 이날 오후 8시 마닐라 인근에 진출할 것이라며 주변지역에 폭풍경보와 폭풍 해일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 관광객 1000여명도 발 묶여=이번 태풍으로 8일 하루 운항 예정이던 마닐라발~인천행 항공편 등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항공편 176편 등 모두 194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 최근 필리핀 관광을 위해 중부 휴양지인 보라카이 등을 찾은 1000여 명의 한국인 여행객들이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풍 하구핏이 필리핀 중부지역에 상륙하기 전인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필리핀항공과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나 등 현지 항공사를 이용해 보라카이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별적으로 현

지 여행에 나선 여행객들도 적지 않아 현지에 발이 묶인 전체 한국인 여행자 수는 한층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리핀이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간 지난 5일과 6일에도 일부 여행자들이 현지를 찾아 전체 한국인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들 여행자는 현재 보라카이 지역과 인근의 칼리보공항 주변 호텔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도 마닐라 지역을 방문한 일부 한국인들 역시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칼리보 공항 주변의 기상 여건이 오는 9일이나 부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이르면 이때부터 귀국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 기상 당국은 태풍 하구핏이 오는 11일에는

필리핀 권역을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했다.

◇일본, 폭설로 산간마을 고립=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일본 각지, 도호쿠(東北)지역, 동해에 접한 중부 지역 등에 폭설이 내려 7명이 사망했다. 5일부터 이어진 폭설로 7일 오후 6시 현재 아오모리(青森)현 아오모리시 스카유(酸ヶ湯) 지역이 116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밖에 야마가타(山形)현 오쿠라무라 97cm, 기후(岐阜)현 시라카와무라(白川村) 90cm, 니가타(新潟)현 쓰난마치(津南町) 87cm의 눈이 각각 쌓였다.

교도통신은 도쿠시마현 서부 산간지역에서 폭설로 나무가 쓰러져 650가구가 고립됐고 히로시마에서도 산간에 주민이 고립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하고 헬기로 주민을 이송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中 "홍콩 문제 간섭말라" 英조사단 입국 불허

중국 이영 외교부 대변인인 왕위안위(王薇)는 홍콩 시위 상황 조사 요구 문제에 대해 다시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고 BBC 방송이 7일 보도했다.

류사오밍(劉曉明)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일요판에 실린 기고문에서 영국 의원들에 대한 홍콩 입국 거부에 대해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그리고 국제법 기준에 부합한 조치"라면서 "어떤 주권 국가도 이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BBC가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달 초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그 어떤 외국정부나 기구, 개인이 그 어떤 방식으로 홍콩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영국 의회 조사단의 홍콩 입국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대사의 기고문은 영국 하원 조사단 홍콩 파견 문제로 정부와 영국 언론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류 대사는 기고문에서 "영국 언론의 비판은 일방적"이라면서 "중국 대사로서 주재국 대중에게 중국의 소리를 전하고 중국의 입장을 이해시킬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기고문은 이어 "손님은 주인의 안배를 따라야 한다"는 중국 고사를 인용하면서 "중국이 영국 하원 의원들의 홍콩 입국을 거부한 것은 하원 외무위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中 난징대학살 영상 첫 공개

중국 정부가 70여년 전 일본군이 저지른 난징(南京)대학살과 관련된 영상 자료들을 공개했다.

중국 국가보안국(국보보안소)은 올해 처음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모일(12월 13일)을 앞두고 당시의 흑백영상 자료들을 수집해 만든 다큐멘터리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오는 13일까지 매일 한편씩 공개될 총 7편 가운데 7일 첫 번째로 나온 10분짜리 다큐는 1937년 당시 난징의 모습과 학살의 참상이 담긴 영상들을 편집해 제작됐다. 이들 영상의 상당 부분은 난징대학살을 직접 목격하고 촬영한 전 세계에 알려진 미국인 선교사 존 매거가 촬영한 것이다.

이번 다큐에는 "중국인 안내의 일기"로 불리는 청루이팡(程瑞芳)의 일기 내용도 포함됐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당시 난징의 진림(金陵) 여자대학 기숙사 사감이었던 그녀는 193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방화, 살인, 약탈, 강간 등 일본군의 각종 만행을 일기로 남겼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들 영상이 중앙과 지방 각지의 당관들이 소장한 영상 자료 중에서 선별해 제작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난징대학살과 관련해 영상물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흑인 목졸라 숨지게한 경찰 또 불기소...미국 항의시위 전국 확산

대부분 평화 분위기 속 일부 약탈 변질 뉴욕 맨해튼서는 '다이 인' 시위 등장

미국 뉴욕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날개 담배를 팔던 흑인을 체포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게 미국 대배심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한 항의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무장 흑인소년을 사살한 미주리 주 퍼거슨의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이 불기소되면서 미국 전국으로 번진 항의시위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흑인 남성 에릭 가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조르기를 해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을 불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도로에 누워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위대들이 흑인 남성 에릭 가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조르기를 해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을 불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도로에 누워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시위로 변질해 가게 약탈 등도 벌어졌다.

CNN 등 미국의 언론들은 6일 밤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서 나타난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비중 있게 소개했다. 이날 오후 5시경부터 버클리에서 진행된 시위는 평화시위로 진행됐다.

목조르기로 사망한 에릭 가너가 11년이나 호소했던 '숨 쉴 수가 없다(I Can't breathe)' 등의 구호를 계속 외치며 잘못된 공권력에 항의했고, 백인 경찰 대니얼 팔탈레오를 기소해 법정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시위대는 버클리를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행진 도중 본대에서 분리돼 나온 200여명은 폭력 시위대로 바뀌었다. 식료품 전문가게인 트레이더즈와 웰스파고는 행을 포함한 몇몇 매장에 돌이나 벽돌, 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약탈했다.

폭력 시위를 막으려고 투입됐던 경찰도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당해 1명이 어깨탈골로 병원에 후송된 것을 포함해 일부가 부상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가스를 동원했으며, 시위는 7일 새벽이 돼서야 끝났다.

뉴욕에서도 나흘째 시위가 이어졌지만 평화시위로 진행돼 경찰과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맨해튼의 그랜드센트럴역에서는 수십 여명이 바닥에 드러눕는 이른바 '다이 인'(die in) 시위를 하며 가너의 죽음을 대해 항의했다. 워싱턴DC의 유니온스퀘어에서도 '다이 인' 시위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30년 전통의 -

민우액자표구화랑

영화 캔버스 액자, 표구, 각종액자 제작, 그림판매

작가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허 경 식

목포시 산정동 112-1 (백년로 4거리 장약국 건너편)

T (061)274-1481
H 010-2632-1481

오직 양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백합촌

오늘의 물 좋은 요리

생우렁지리 (국내산)	소 25,000원 중 35,000원 대 45,000원
병 어	45,000원
생선구이 (2인기준)	25,000원 1인추가시 5,000원 추가
백합세트 (탕+우렁+구이)	50,000원
백합탕	중 30,000원 대 40,000원
조기매운탕	중 25,000원 대 40,000원

목포시 상동 1159-3번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호텔 앞 담양골 건너편)

T (061)281-9907

법무사 배태경 사무소

봉사의 자세로 열정과 성의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 친절 무료상담

부동산 등기·법인등기 민사·형사·가사 호적·개명

경매 입찰 대행 가압류·가처분 등

T (061)283-2322
F (061)283-2302
목포시 옥암동 목포 검찰청 정문앞